

현장시선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현대사회가 24시간 사회로 인식되면서 관광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최근 관광객들은 자연경관, 역사문화, 체험 및 액티비티 등 주간에만 활동하는 관광콘텐츠 외에도 주간 콘텐츠의 야간화, 혹은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

야간관광을 보통 도시관광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많으나 정확히는 야간에 경험할 수 있는 '관광행동'으로 파악해야 한다.

'반짝반짝' 야간관광... 제주의 밤을 수놓는다

야간관광을 '야간'의 측면에선 도심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야간투어(시티투어버스) 등 야간시간대에 '공급'되는 모든 콘텐츠들이 관광을 통해 일고자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에게 지역성을 반영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야간관광의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일괄적인 조명 설치, 부재된 스토리, 지역과 합치되지 못한 콘텐츠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도, 관광 만족도도 제고되기 어렵다.

제주에서는 현재 조명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 야간에 개최되는 문화공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이것이 과

연 양적으로 부족한 것인가, 만족스러운 콘텐츠가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콘텐츠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아무리 많은 콘텐츠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늘 부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상품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현장,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질이 상호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

동시에 관광은 수요자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소득 창출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낮 시간대에 한정된 관광을 야간으로 연장시킨다는 것은, 관광객들의 소비행동을 지속시켜 해당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올해 야간 문화·예술·체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 경

제 활성화 체계 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한 여름 밤인 지난 7월 제주 해변에서 선보인 '이호스원제즈페스티벌', '컬러풀이호' 행사를 비롯해 8-9월 서귀포 제주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 일대에서 문화공연 행사(와라와라 in 서귀포)를 개최하는 등 색다른 콘텐츠로 도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

야간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밤이 제공하는 특별한 시간에 지역의 정취를 느끼면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는 앞으로 장소마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 제공을 통해 제주의 밤을 밝히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린다.

사설

초동수사 부실, 제주경찰 성찰의 기회로

지난 5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고씨와 관련된 루머가 양산되면서 엉뚱한 이들이 피해를 봤는가 하면 도 넘은 신상털기와 아예 근거 없는 헛소문이 나도는 등 그 파장이 적잖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경찰의 수사는 많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고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그제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이 지난달 2일부터 고씨 사건을 담당한 동부경찰서에 진상조사수사 부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동부서는 초동수사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당시 '실종사건'이라는 이유로 고씨의 거지

진술만 믿고 피해자가 살해당한 숙박시설과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범죄 혐의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 고씨의 체포가 늦어진다며 범행의 가장 큰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은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경찰의 수사체계까지 바뀌놓을 정도로 파문이 컸습니다. 그동안 경찰서 위주로 이뤄지던 강력사건 수사를 상급기관인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직접 지휘하는 '중합대응팀'을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고씨 사건의 초동수사 미흡 논란으로 경찰이 여론의 못매를 맞으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고씨 사건 수사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질책을 받게 되는데 대해 분명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제주경찰은 고유정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수사기법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강제수용방안 마련해야

제주도내에서도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마친 결과 제주시 19개소, 서귀포시 5개소 등 모두 2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철거된 건축물 1건 등 모두 9건이 정비가 마무리됐지만 제주시 지역 14개소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이 7개소로 가장 많고 판매시설 4개소, 주택과 전시장, 공장, 노래연습장이 각 1개소입니다. 방치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변에 위치한 관광호텔 건물입니다. 지난 1994년 2월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하

기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뒤 22년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공사중단 장기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장기방치 건축물 대부분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유치권 문제 때문에 개발이나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정비과정에서 시·도지사 결과 제주시 19개소, 서귀포시 5개소 등 모두 2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철거된 건축물 1건 등 모두 9건이 정비가 마무리됐지만 제주시 지역 14개소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이 7개소로 가장 많고 판매시설 4개소, 주택과 전시장, 공장, 노래연습장이 각 1개소입니다. 방치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변에 위치한 관광호텔 건물입니다. 지난 1994년 2월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하

열린마당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민세를 알려드립니다



조성현 서귀포시 서흥동주민센터

1년간 지방세 업무 민원을 담당하며 느낀 점은 다른 세급에 비해 주민세의 경우 왜, 누가, 언제 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주민세란 쉽게 말해서 주민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중 개인근로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한다. 세대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근로자를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

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근로분이 면제된다.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을 배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작년까지 8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과세됐는데, 원활한 세금부과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7월 1일)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또한 작년까지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부과했으나,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급이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부과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정기인사 이후 업무공백 없어야"

대규모 인사이동 혼선 우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행정부지사 주재 현안업무토론회를 열고 철저한 인계인수를 통한 민원업무 불편 최소화 등을 주문.

지난 5일자로 682명 규모의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진행한 가운데, 대규모의 보직 이동과 인사로 업무 미숙에 의한 대민 서비스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

주변에서는 "정기인사 직후라 사정은 이해하지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라면서 "빠른 업무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이소진기자

종합민원실 무더위쉼터 운영

○...제주시가 폭염속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난 1일부터 9월말까지 종합민원실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어 눈길. 무더위 쉼터에는 자동혈압 측정기와 인바디 검사기, 마음건강 검

진기 등이 있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교양서적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자료도 비치.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언급. 고대로그기자

학교운동부 인권보호 연수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연수를 실시.

교육청은 지난 5-7일 제주대학교에서 지도자 69명을 대상으로 '밝고 건강한 학교운동부 실현을 위한 연수'를 통해 청렴의식 향상, 도핑예방,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훈련·시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방지 등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인권보호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표성준기자

부고
홍정수(세무사 고현철사무소 사무장) 아버지 남양홍공 영진(처사·향년 74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8일 02시 3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8월 12일(월)
발인일시: 2019년 8월 13일(화) 오전 5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차: 영락리 선영
부인 서원옥
아들 홍정수, 며느리 윤수영
정환 김미희
정필 정금녀
정효 김은하
응준 김미정
딸 홍은리 사위 임연주
\* 연락처: 홍정수 010-9634-1116
홍정환 010-6247-8485
홍정필 010-3692-8327
홍은리 010-3177-2612
홍정효 010-3119-5264
홍응준 010-3169-4608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789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률
미국식품의약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한라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도내·친다·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원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여론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